

“이석형 후보 경선 불·탈법 度 넘었다”...수사 할 듯

민주 광산갑 이용빈 후보측 경선 결과 불복 재심 청구 선관위도 불법사무소 확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석형 후보가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이곳에서 일한 젊은이들의 임금도 체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회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이석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허술한 경선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앞서 광산갑 선거구에서는 불·탈법 관리당원 모집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불법의 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경선 투표를 진행해 ‘표심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용빈 후보 측이 주장하는 이석형 후보 관련 불·탈법 건수가 8건에 달해 재선거 위험도 커지고 있고,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지역 정계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5일 광주시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형 예비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이석형 후보가 운영한 불법 전화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석형 후보 측이 다수의 대학생을 고용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에 필요한 영상 및 웹 포스터 제작, 전화 홍보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제보와 녹취가 있다”며 “선관위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급습해 사실을 확인했고,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선거에 불법 동원된 대학생들의 수도 수십명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녹취도 확보했다”면서 “불·탈법을 통한 경선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형 후보의 불·탈법이 도를 넘어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용빈 후보는 지난 4일 “민주당 경선 결과는 이석형 예비후보의 불·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물이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의 광산갑 경선은 당일모집 과정에서부터 불·탈법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이 광산갑 지역구의 관리당원 전수조사를 하고도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무더기로 당원을 접수한 세력에 대한 처벌과 수사의 의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당일 투표를 진행, 민주당 스스로 불·탈법 경선을 눈감아줬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이석형 후보의 입당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탈당 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른 정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형세 정치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도 컸다.

이에 대해 이석형 후보측은 “이용빈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은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다”면서 “후원회 사무실 여직원도 후원회 모집 차원에서 전화를 건 것이며, 선관위에는 충분히 이를 소명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선대 온라인 강의 준비
조선대학교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1, 2주차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5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교내 본관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수학과 교수가 강의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

민주, 검찰 고발 당한 최선경 후보 자격 박탈...광산갑 이석형 후보 재심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해 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재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민주당은 과거 ‘미투(Me too)’ 폭로를 당한 예비 후보를 컷오프 하는 등 ‘부적격 후보’에 대

한 출마 문제를 강도높게 정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 후 자격이 상실되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 사전에 ‘불·탈법 후보’를 정밀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을 당한 충남 홍성-예산 지역 구 최선경 후보의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또 서울 동대문구에 공천을

신청한 민병두 의원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따라 컷오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변수는 모두 제거하고 선거전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라는 분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신천지 1만6540명 전원 소재 파악

유증상자 240명 모두 ‘음성’

전남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모두 1만6540명에 대한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240명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과 29일 신천지 측에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 폐쇄, 정부에 제출한 명단 중 누락된 신도를 비롯해 명단이 제출됐지만 연락이 안 된 신도의 신고 의무화, 신천지 신도, 대구집회 참석자, 기집·발열 등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전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신도 185명이 자진신고했으며, 시·군의 미확인자 추적으로 1025명, 전남지방경찰청의 협조로 508명 등 1718명의 미확인 신천지 신도 소재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240명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고위험 직업군 815명은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 중이다. 또 관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섰다.

정장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아직 조사기간이 남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의 모

든 행정력을 동원했으며, 앞으로도 고위험 직업군을 특별 관리하고 전체 신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코로나 19 환자 2명은 전남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62세 남성이 화순전남대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졌고, 4일 밤에는 56세 여성이 같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환자는 폐렴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중앙방역대책국의 전원 결정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대상 조사가 마무리됐고 무증상자 신도와 대구 시민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지역과 5일 새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산시 이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곳은 아직 없다”면서 “확진자 집중 발생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순천 전략공천·여수갑 재심 논란...동부권 무소속 벨트 꿈틀

순천 예비후보들 강력 반발

여수 지지율 높은 후보 컷오프

민주당의 4·15 총선 광주·전남 후보자 경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동부권 벨트가 심상찮은 모습이다. 아직 여수갑 컷 오프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순천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역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동부권 무소속 벨트가 형성되면서 전남지역 총선 구도에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민주당 공관위(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5일 순천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또한 순천의 기존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 심사를 해줄 것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 내외

에서는 그동안 전략공천설이 돌았던 소병철 전 고검장이 순천에 투입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순천 민심은 동의하고 있다. 지난 4일 선관위에서 순천을 분구하는 확정안을 내놓았으나 5일 여야가 합의해 사안상 없던 일로 만든데 이어 민주당이 순천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1년 이상 경선을 준비해왔던 예비 후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순천 예비후보인 서갑원 전 의원은 “당이 순천의 분구를 막는데 이어 느닷없이 낙하산 공천을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고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당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일”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민주당이 통합당과의 합의를 통해 순천 분구를 무산시킨데 대해 지역 민심이 좋지 않는데

순천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논란이 크다”며 “민주당이 순천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관위의 주철현 전 여수시장 컷오프에 대한 재심을 놓고도 논란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지난 3일 여수갑 경선 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당내에서는 각 언론사 여론조사는 물론 당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주 예비후보에 대한 공관위의 컷오프가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재심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재심위가 기존 공관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주 예비후보가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부권에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을 주목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 기반이 약한 신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무소속 벨트는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광양-여수-순천을 잇는 무소속 벨트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서부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남 총선 구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서부권에는 박지원(목포시), 황주홍(고흥·보성·강진·장흥),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 등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단한 지역 조직을 바탕으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어 동부권의 무소속 바람과 결합한다면 전남 총선 구도의 지각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5일 밤 늦게 광주 동남갑(윤영덕·최영호), 서구를(고삼석·양항자·이남제), 광산을(민형배·박시중)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트윈스틸)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이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